http://dx.doi.org/10.15686/FKL.47.0.14

【해외연구동향】

오키나와현(縣) 평화기념자료관 전시 조작 사건 재고

- 공범화 개념으로 보는 식민지주의와 섹슈얼리티

타마시로 후쿠코(玉城福子)*
번역 : 장수희**

* 오키나와 대학 비정규 교수. 대학컨소시엄 오키나와 '아이의 거처 학생봉사센터' 코디네이터.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사회이론·동태연구소 연구원. 2013년에는 오키나와 남부 성소수자운동단체의 공동대표로 성과 다양성을 축하하는 예술 축제 '컬러풀 카니발 2014'을 기획·진행한 바 있다. 젠더와 식민지주의 문제에 특히 관심이 커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대표 연구로는 「縣外移設論が提起するポジショナリティの問題－環狀島モデルを用いて」(『部落解放研究』, 2018), 「Remembering the Battle of Okinawa, Forgetting the Comfort Women」(『The Gender Politics of War Memory: Asia-Pacific and Beyond』, 大阪大學出版會, 2012) 등이 있다. 이 글은 2014년 『女性·戰爭·人權』(2014) 제13호에 게재된 「沖縄縣平和祈年資料館展示改ざん事件の再考」를 번역한 것이다.

** 동아대학교 시간강사. 한국문학에 재현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을 추적하는 한편, 그것이 현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 쓴 글로는 「일본군 '위안부', 촛불 소녀 그리고 민주주의」(『소녀들』, 여이연, 2017),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문화적 재현」(『문학들』, 2017) 등이 있고, 번역으로는 「포드·1927」(『갈채』, 소명출판, 2019), 「대학 비정규직의 '제노사이드'를 눈앞에 두고」, (『문화/과학』, 2019), 「퀴어가 여기 살고 있다」(『문화/과학』, 2015) 등이 있다.

목차

1. 들어가기
2. 오키나와전(戰)의 기록과 식민지주의
  2.1. 오키나와전 연구에서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이라는 틀의 성과와 한계
  2.2. 공범화 개념의 도입
  2.3. 페미니즘으로 개입
3. 조작 사건의 개요
  3.1. 평화기념자료관 리뉴얼 당시의 정치적 상황
  3.2. 전시의 변경·삭제와 '사건화' 과정
4. 현간부의 발언과 전시의 변경·삭제
  4.1. 주목하는 지점과 자료
  4.2. 현간부들의 발언
  4.3. 변경·삭제의 대상이 된 것
5. 조작 사건 재고로 드러나는 것
  5.1. 변경·삭제의 방법과 그 효과
  5.2. 공범화와 탈공범화
6. 나오며

〈국문초록〉

1999년 여름,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전시 조작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오키나와현 지사와 부지사의 전시내용 비판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담당자가 감수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전시내용을 변경하도록 업자에게 지시한 일이다. 그 후 신문 보도로 변경과 삭제가 하나씩 드러났는데 변경 항목 수는 약 230여 개나 되었다. 이러한 조작 사건은 오키나와전의 비참함을 은폐하는 것이었는데, 연구자는 물론 시민들도 반발하자 감수위원이 작성했던 당초의 전시안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사건은 대략 정리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변경·삭제되었던 주민에 대한 군대의 폭력이라는 주제가 가장 초점화되었지만, 당시 똑같이 변경·삭제의 대상이 되었던 오키나와전 당시의 '위안소'와 미군점령하의 A사인바(미군의 풍속영업시설 허가 기준에 합격한 술집) 전시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는 '위안소'와 A사인바와 같이 섹슈얼리티와 관련성이 짙은 전시에 가해

진 전시 변경에 주목하고, 신문기사와 행정자료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범화'라는 개념으로 사건을 다시 고찰한다. 먼저 오키나와인이었던 현간부나 행정담당자들이 일으킨 전시 조작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고, 오키나와 지식인들이 역사 조작에 저항하면서도 섹슈얼리티에 관한 전시 조작은 간과했음을 지적했다. '위안소'와 A사인바 전시 조작은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오키나와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제기는 군사주의뿐 아니라 식민지주의를 다시 물을 때에도 중요한 힘을 갖는다.

국문핵심어 : 공범화, 식민지주의, A사인바, 위안소, 오키나와전

1. 들어가며

1999년 여름,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전시 조작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 오키나와현 내에서 큰 뉴스가 되었다.[1] 그 후 신문 보도로 변경이나 삭제가 잇달아 밝혀졌는데, 변경항목 수는 약 230개에 달했다. 이나미네 케이이치(稲嶺惠一)[2] 현(縣)지사와 부지사가 전시내용 비판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담당자가 감수위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전시내용을 변경하도록 업자에게 지시했던 것이다. 오키나와전 때의 가마[3](자연동굴)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전시에서 일본군 보초병이

1) 같은 시기 야에야마 평화기념자료관에서도 신오키나와현평화기념자료관과의 정합성이라는 이유로 감수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무단 조작이 있었고, 같은 사건으로 다룰 수 있지만 지면의 한계가 있어 본고에서는 오키나와현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내용과 그것을 둘러싼 논의로 좁혀 논하겠다.

2) [옮긴이] 이나미네 케이이치(稲嶺惠一, 1933~) : 1998년~2006년까지 오키나와현지사. 아버지는 류큐석유(현재 류우세키)의 창업자인 전 참의원 의원 이나미네 이치로(稲嶺一郎, 1905~1989).

3) [옮긴이] 오키나와 본섬의 남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자연동굴. 오키나와 본섬에는 약 2000개의 석회암으로 형성된 종유동굴이 있는데, 오키나와 말로 '가마'라고 한

주민을 향해 들고 있던 총을 감수위원의 허가없이 철거한 예가 대표적인데 전시의 변경은 오키나와전의 비참함과 일본군의 잔학함을 은폐하는 것이어서 감수위원이나 연구자뿐만 아니라, 현내 평화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의 단체가 항의를 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그 결과 전시는 감수위원회가 원래 작성했던 당초의 전시안으로 거의 복원되었다. 특히 오키나와 현내에서는 '역사의 조작'을 담당했던 자가 일본 정부나 야마토인(야마톤츄. 일본 본도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민족)이 아니라 오키나와현 간부를 포함한 행정관계자들인 오키나와인(우치난츄)이었던 것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당초, 신문 보도에서 '신평화기념자료관문제', '전시변경문제' 등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그 후 오키나와전 연구자들에 의해 '오키나와현평화기념자료관 전시 조작 사건'으로 명명되었다.[4] '조작'이라는 말은 문서 등의 어구를 고치는 것을 뜻하지만, 악의적으로 바꾼다는 늬앙스가 들어 있다. 본고에서는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악의가 있었다는 견해를 반드시 따르지는 않지만, 신자료관에서 일어났던 전시 변경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조작 사건'이라고 하겠다.(이하 '조작 사건'으로 표기)[5]

선행연구에서의 조작 사건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오키나와전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군대의 시점과 주민의 시점(야마톤츄의 시점/우치난츄의 시점)[6]이 대립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선행연구에서는 군대의 주

다. 오키나와전 때 주민들과 일본군의 피난처나 야전 병원으로 이용되었다.

4) 石原昌家·大城將保·保坂廣志·松永勝利, 『爭点 · 沖縄戰の記憶』, 社會評論社, 2002.

5)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입장에서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비판되어 왔지만, 본고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비판적인 관계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에의 진지함'은 추구해야한다는 모리스 스즈키에 동의한다(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 『批判的想像力のために—グローバル化時代の日本』, 平凡社, 2002).

6) '군대의 시점과 주민의 시점'이라는 틀은 오키나와전 연구에 있어서도, 현내의 신문에서도 익숙한 틀이 되었다. 표기에서는 '군대'는 '군', '군사'와 치환되는 경우도 있다. 또 '주민'은 '민중', '민', '현민'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시점'은 '실

민 폭력에 관한 전시가 변경·삭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오키나와전의 역사를 둘러싼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이라는 이항대립에는 야마톤츄의 시점/우치난츄의 시점[7]이라는 대립이 짙게 겹쳐져 있다.[8]

그러나 오키나와인(우치난츄)이 저지른 전시 조작 가운데 '위안부'나 A사인바(Aサインバー[A sign bar].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 이전 미군 풍기단속위원회의 위생기준에 합격한 술집.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주1회 성병검사를 받아야 했다)에 관한 전시는 변경·삭제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점이 되지 않았다. 조작 사건 후에 전시 수정을 거친 현재의 전시도 전후 여성의 역할과 성폭력 문제 등을 포함하는 여성의 전체상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9] 왜 '위안소'나 A사인바와 같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전시가 변경·삭제의 대상이 되었을까. 또 이러한 전시 조작에 현 간부나 행정담당자가 관여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아가 '위안소'나 A사인바에 가해진 전시 조작에 대해 오키나와 지식인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사태를 어떻게 사유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제기는 조작 사건 후에 남은 과제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위안소'와 A사인바에 대한 변경·삭제를 초점화하고 행정자료와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1999년에 일어난 조작 사건을 재고하고자 한다.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야마톤츄/우치난츄)이라는 이항대립 전제

체', '입장', '논리'라는 용어와 호환적으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군대', '주민', '시점'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7) 오키나와에서는 우치난츄(오키나와인) 이외의 일본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야마톤츄(야마토인)' 말고도 '나이챠(내지인)', '본토인' 등의 호칭이 사용된다. 포지셔널리티(입장성)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용어인 내지나 본토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도 있지만, 여기서는 단지 에스니시티(ethnicity)를 가리키는 '야마톤츄(야마토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 長谷川曾乃江, 「沖縄縣新平和記念資料館問題の思想史的再考」, 『法學新報』 107, 2000; 櫻澤誠, 「沖縄戰の戰後史—'軍隊の論理'と'住民の論理'のはざま」, 『立命館平和研究』 11, 2010.

9) 荒川章二, 「新沖縄縣平和祈念資料館設立をめぐっ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126, 2006, 133-190쪽.

의 한계를 넘기 위해 포스트콜로니얼리즘론에서 사용해 온 '공범화' 개념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답해 보려고 한다. 어떻게 '위안소'나 A사인바의 전시가 바뀌게 된 것일까. 현재의 전시는 어떻게 되어 있나. 공범화라는 개념으로 조작의 과정이나 조작 전의 전시안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고찰하면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

조작 사건은 마이너리티와 역사 표상이라는 관점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회적 영향 정도를 보더라도 재검토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조작 사건의 재고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점에서 오키나와전에 대한 역사인식을 재고하고, 식민지주의를 다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섹슈얼리티를 초점화한 공범화 개념에서 조작 사건을 분석하는 것은 사례연구인 동시에 포스트콜로니얼리즘론에 대한 이론적 공헌도 될 것이다.

2. 오키나와전의 기록과 식민지주의

2.1. 오키나와전 연구에서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이라는 틀의 성과와 한계

조작 사건을 분석하는 틀은 오키나와전의 역사 표상을 둘러싸고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이 대립한다는 것이었다. 감수위원을 포함해 당시의 조작 사건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던 다수의 현내 지식인, 신문기자들이 써낸 『쟁점·오키나와전의 기록』에는 "오키나와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 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군사의 시점·군의 논리'(군사·군비[軍備]에 의한 안전보장)와 '민중의 시점·민의 논리'(비군사에 의한 평화·민중의 안전보장)가 계속 대립해왔다."[10]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책에서 조작 사건은 오키나와전을 둘러싼 이러한 두 시점의 대립이 드러나는 일련의 논쟁 속에 놓여 있다.[11] 오키나

와전을 둘러싼 역사 표상의 변화를 정리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 서술에서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이라는 이항대립의 틀은 큰 설득력을 얻어왔다고 할 수 있다.[12]

또 오키나와전 서사에 의해 생겨난 오키나와인 정체성은 평화운동과 반(反)기지 운동의 기반이 되어 왔다.[13] 예를 들면 앞서 인용한 오키나와전 연구자들의 지적에서는 '군사의 시점·군의 논리'(군사·군비에 의한 안전보장)와 '민중의 시점·민의 논리'(비군사에 의한 평화·민중의 안전보장)가 대립하고 있다는 안전보장에 대한 인식까지 읽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오키나와전에 대한 인식과 평화에 대한 인식이 강한 긴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의 시점에서 그려진 전쟁의 비참함이라는 서사는 전쟁과 군대의 미화나 정당화에 대한 저항의 자원이 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

10) 石原昌家 외, 앞의 책, 9쪽.

11) 구체적으로는 '오키나와현 내에서는 과거에도 구평화기념자료관 제1차 전시문제(1975년), 전적비문 문제(1977년), 주민 학살 교과서 기술 삭제 사건(1982년), 이에 나가 교과서 재판 3차 소송(1984년) 등 오키나와전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여러 논의와 운동이 있었고, 전국적으로도 교과서와 평화박물관 등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어떻게 총괄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격렬해졌던 흐름'(大城將保, 「沖縄戰の眞實をめぐって—皇軍史觀と民衆史觀の確執」, 石原昌家 외, 앞의 책, 16-17쪽) 속에 위치되어 있다.

12) 오키나와전의 기술 변화에 대해서는 吉浜忍, 「沖縄戰後史にみる沖縄戰關係刊行物の傾向」, 『史料編集室紀要』 25, 2000과 鳥山淳, 「沖縄戰をめぐる聞き書きの登場」, 倉澤愛子ら編, 『日常生活の中の總力戰』, 岩波書店, 2006을 참조할 것.

13) Julia Yonetani, "Contested memories: struggles over war and peace in contemporary Okinawa". In Glen D., Hook and Siddle (eds) *Japan and Okinawa: Structure and Subjectivity*, London:Routledge, 2002, pp.188-207.



그림 1. 조작 사건이 알려지는 발단이 된 보초병과 총(오키나와현평화기념자료관 제공)

나아가 지식인들이 했던 조작 사건 비판에는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에 야마톤츄/우치난츄의 시점이 겹쳐져 암시되고, 오키나와인이라면 주민의 시점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조작 사건이 밝혀진 뒤 오키나와 지식인들의 발언에는 "'이나미네 지사는 오키나와인성(性)이 살아있나'라고 묻고 싶은 것은 나 한 사람만은 아닐 것이다"[14]라는 비판과 전쟁체험은 "우치난츄(오키나와인)의 실존이 걸린 혼의 문제"[15]라는 비판이 있다. 현 내에서 조작 사건의 충격이 컸던 이유 중에는 많든 적든 조작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오키나와인(우치난츄)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오키나와인(우치난츄)이 오키나와전 표상에서 군대의 시점(야마톤츄의 시점)에 섰던 경우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은 없다. 군대의 시점(야마톤츄의 시점)에 선 것이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왜 그러한 시점에 서게 되었는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배신

14) 平良修, 「沖縄の戰爭罪責—摩文仁が丘慰靈碑 · 平和の礎 · 新平和祈念資料館をめぐって」, 『インパクション』 119, 2000, 41쪽.
15) 大城將保·石原昌家, 「監修委員の視点」, 石原昌家 외, 앞의 책, 256쪽.

자'라고 간주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야마톤츄의 시점/우치난츄의 시점)이 대립하는 틀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조작에 관여한 오키나와인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왜 '배신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이나 배경을 불문에 부친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2.2. 공범화 개념의 도입

본고에서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론에서 식민지주의를 해석할 때 사용해온 '공범화'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한다. 노무라 코우야(野村浩也)는 공범화를 '피식민자가 식민지주의에 손을 빌리고 마는 것'[16]이라고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공범화 개념의 특징이나 강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범화를 '피식민자가 구조적인 강제력 아래에서 원래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식민지주의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포기하는 역프로세스를 '탈공범화'라고 하겠다.

조작 사건에서 조작을 담당했던 사람이 오키나와인이라는 점은 현내에 충격을 주었지만, 오키나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식민지주의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오키나와인이 담당했던 일은 드물지 않다. 노무라는 오키나와 방언(류큐 제어[諸語])[17] 억압 실행에 오키나와인 교사들이 앞장섰던 사례나 오키나와인이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용인하는 것을 공범화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그는 일본과 오키나와의 관계를 식민지주의로 파악하고 포스트콜로니얼리즘론의 다양한 개념으로 미군기지 문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모습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중 식민지를 유지하는 데 공

16) 野村浩也, 『無意識の植民地主義—日本人の米軍基地と沖縄人』, 御茶の水書房, 2005, 50쪽.

17) [옮긴이] 오키나와 본섬과 다른 섬들에서 사용하는 방언에도 역시 지역 차이가 있다. 이러한 오키나와의 여러 언어의 집합으로서의 류큐 제어.

범화의 역할이 크다고 논한다.

공범화에서 중요한 것은 방언(류큐 제어[諸語])을 비롯한 오키나와인의 문화를 부정하는 동시에 일본어 등의 문화를 강제해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오키나와인이라는 사실과 오키나와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된다. 피식민자에게 콤플렉스를 심는 일은 동화를 촉진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동화란 단순히 야마톤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마톤츄에게 좋은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화는 공범화를 촉진시킨다고 노무라는 말한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론에서 사용해 온 공범화 개념은 조작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 식민지주의라는 관점에서 오키나와를 논할 때 군사주의는 오키나와 식민지주의의 특징으로 지적된다.[18] 과거의 전쟁이나 군대의 미화 혹은 비참함을 은폐하는 역사 표상은 현재의 군대와 군사력을 긍정하는 작용을 한다.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오키나와전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가 지금까지 격렬하게 투쟁해온 것은 현재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과

18) 사회학자인 노무라 코우야가 '일본인이 아직까지도 식민지주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오키나와인에게 75%나 되는 재일 미군기지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명백히 알 수 있다'(野村浩也, 앞의 책, 17쪽)고 기술하고 있듯 미군기지의 과중부담은 식민지주의의 상징으로 지적된다. 오키나와에서 누가 이익을 얻는지에 대해 정치학자인 C·더글라스·러미스(C·ダグラス·ラミス, 「帝國を設けて、何がてけないのか?」, 野村浩也編, 『植民者へ—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という挑發』, 松籟社, 2007)는 지위협정으로 미군들이 보호받는 일을 지적하면서, 미군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논한 바 있다. 한편, 노무라(野村浩也, 앞의 책)와 같이 미군기지를 오키나와에 과중부담시키는 것으로 '본토'에 살고 있는 많은 일본인이 기지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면서 일본인의 이익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마부쿠로 마리아(島袋まりあ, 「太平洋を横斷する植民地主義—日米兩國の革新派と'縣外移設論'をめぐって」, 野村浩也編, 『植民者へ：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という挑發』, 松籟社, 2007)는 일본과 미국의 공범 관계 하에 식민지 오키나와가 성립하고, 양자가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의 입장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시마부쿠로는 '억압이양'론을 부정하고 '일미 양국의 이익을 지키는 식민지주의'이며 '각기 2개의 식민지주의는 그 존재론적 성립을 위해 상호 존재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 섞여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때문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식민지주의(transpacific colonialism)'라고 불러야한다고 주장한다.

도하게 집중해 있고, 군대와 군사력으로 일을 해결하는 방식을 정당화하는 것이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키나와전 역사 조작은 군사주의적인 의미에서 식민지주의의 실천이다. 따라서 전쟁이나 군대의 미화 또는 비참함을 은폐하는 역사 표상에 오키나와인이 가담하게 될 때 공범화가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노무라도 강조하고 있는 공범화의 중요한 이유는 공범화 이외의 선택지를 빼앗겨,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민지주의에 손을 빌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공포감이다. 노무라는 공범화에 중요한 요소인 공포감을 역사적 경험과 현대적인 상황에서 논한다. 구체적으로는 오키나와전 당시 오키나와 방언(류큐 제어)으로 나눈 대화 때문에 스파이로 몰려 학살당한 경험과 고실업률을 든다. 높은 실업률은 실업자뿐 아니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공포를 일으킨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현에 기지를 수용하는 대신 오키나와현에 대한 경제진흥책을 교환물로 제시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 실업의 공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경제진흥책으로 상징되듯 공범화의 강제성은 공포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 피식민자 전체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이 되는 것처럼 위장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2.3. 페미니즘으로 개입

그러나 노무라가 공범화 개념으로 분석한 사례에서는 식민지주의의 재생산에 관해 섹슈얼리티가 하는 역할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는 군사화와 군사주의를 둘러싼 페미니즘 연구를 실마리로 삼아 식민지주의를 재생산할 때 섹슈얼리티가 이용되고 있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페미니스트에 의한 평화학이나 국제정치학은 젠더나 섹슈얼리티가 전쟁과 군대를 성립시킨다는 것을 밝혀왔다.[19] 군대 조직과 군인다움의 기초에는 여성멸시와 동성애 혐오가 있다.[20] 여자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

니라는 부정형 위에 군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신시아 인로는 '성행위는 일상적으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구축하는 것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21] 그 때문에 남자다움의 하나인 군인다움의 구축을 위해 매춘과 강간이 이용된다. 또 병사들은 점령지로 인식하는 장소에서의 강간을 매춘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아가 인로는 군 당국자들은 병사에게 매매춘을 제공하면 강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다.[22] 이러한 연구 성과에 입각하면 군대의 시점에서는 '위안소'나 A사인바가 꼭 필요하지만 숨기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위안소'와 A사인바 전시 조작은 전쟁과 성, 군대와 성의 밀접한 관계를 역으로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사주의와 성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빠질 수 없는 가부장제라는 개념이다. 와카쿠와 미도리(若桑みどり)는 군대의 기반에 가부장제가 있고, '여성멸시는 원래 가부장제의 정신구조이며, 군대는 이것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23] 가부장제는 "'남자다움'을 지닌 소수의 남성이 권력을 독점하고, 젠더뿐 아니라 민족성·인종, 계급 등의 요인에 따라 소수의 남성(여성이 들어가기도 하지만)이 대다수의 타자를 지배하는 패권구조"[24]이다. 가부장제는 우리 사회에 깊게 뿌

19) 가장 영향력 있는 논자로서 전쟁과 군대의 배후에 가부장제가 있다고 논한 베티 리어돈(Betty A. Reardon)과 국제정치를 젠더 입장에서 독해한 신시아 인로를 들 수 있을 것이다.(ベティ·リアドン, 『性差別主義と戰爭システム』, 山下史譯, 勁草書房, 1988; シンシア·エンロー, 『戰爭の翌朝—ポスト冷戰時代をジェンダーで讀む』, 池田悅子譯, 綠風出版, 1999; シンシア·エンロー, 『策略—女性を軍事化する國際政治』, 上野千鶴子監譯·佐藤文香譯, 岩波書店, 2006)

20) 더글라스 라미스는 해병대원이었던 자신의 체험을 분석하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군인을 만들기 위한 기초훈련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에 부모 멸시, 특히 어머니의 권위에 대한 부정을 들고 있다.(C·ダグラス·ラミス, 『憲法と戰爭』, 晶文社, 2000)

21) シンシア·エンロー, 앞의 책, 1999, 171쪽.

22) シンシア·エンロー, 앞의 책, 2006.

23) 若桑みどり, 『戰爭とジェンダー—戰爭を起こす男性同盟と平和を創るジェンダー理論』, 大月書店, 2005, 205쪽.

24) 秋林こずえ, 「'沖縄'基地·軍隊を許さない行動する女たちの會'-批判的フェミニズムと平和」, 女性·戰爭·人權學會學會誌編集委員會編, 『女性·戰爭·人權』 7,

리박혀 있어 일반적으로 성역할 분업이나 성의 이중기준도 군사주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진다.[25] 군대와 성, 군사주의와 성은 밀접하게 관련되면서도 그 관계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 연구라고 불리는 영역의 최근 연구 동향에서도 '야마토/우치나'라는 이항대립이 아닌 복합적인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오키나와 연구에서 에스니시티와 젠더라는 두 시점을 포괄하는 이론적 틀을 제안하고 있다.[26] 이러한 복안(複眼)적인 시점은 오키나와전과 전후 분석에서 성폭력과 성의 관리라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게 했다. 또 포스트콜로니얼리즘론과 섹슈얼리티론을 접목한 문학비평을 전개하는 신조 이쿠오(新城郁夫)는 오키나와 문학을 제재로 군사주의나 식민지주의가 성차별과 이성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27]

이처럼 군사주의와 성을 둘러싼 연구 성과는 전쟁과 군대가 성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그 주축이 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서 자명한 것으로 자연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고에서는 공범화 개념으로 사례를 분석할 때 식민지주의를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섹슈얼리티를 위치시킨다. 식민지주의와 섹슈얼리티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전시의 변경·삭제 그리고 현재의 전시를 재검토하고, 전시의 조작 과정과 오키나와 지식인들의 비판으로 그것이 철회되었던 과정을 공범화 및 탈공범화 개념으로 다시 파악해보겠다.

2005, 40쪽.

25) 권인숙은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의 특성 중 하나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가부장제하에서의 역할과 군사주의에 관련한 역할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權仁淑, 「韓國の軍事主義とジェンダー」, 山下英愛譯, 女性·戰爭·人權學會學會誌編集委員會編, 『女性·戰爭·人權』 6, 行路社, 2003, 69쪽)라고 지적하며, 군대의 유지·운영이 어떻게 군인 아내의 노동과 협력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권인숙, 같은 논문)

26) 勝方＝稻福惠子, 『おきなわ女性學事始』, 新宿書房, 2006; 菊地夏野, 『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とジェンダー』, 青弓社, 2010.

27) 新城郁夫, 『沖縄文學という企て—葛藤する言語·身体·記憶』, インパクト出版會, 2003; 『到來する沖縄—沖縄表象批判論』, インパクト出版會, 2007; 『沖縄を聞く』, みすず書房, 2010.

3. 조작 사건의 개요

3.1. 평화기념자료관 리뉴얼 당시의 정치적 상황

조작 사건의 무대가 된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자. 1975년에 개관한 구자료관[28]에는 건물의 노후화 문제가 있었다.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29] 지사 때 재건 및 전시의 충실을 목적으로 신자료관의 건설이 결정되었다. 오키나와전 체험자인 오타 지사[30]는 평화행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고 신자료관, 평화의 초석, 국제평화연구소라는 세가지 주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1998년 현지사 선거에서 오타 마사히데가 이나미네 케이이치에게 패하여 혁신에서 보수로 현정권이 이행하자 평화행정은 변경을 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평화의 초석은 1995년에 이미 건립되었지만, 이나미네 케이이치가 현정권을 잡게되자 평화행정의 세 가지 주요사업(신자료관, 평화의 초석, 국제평화연구소)은 수정되었는데, 그 중 국제평화연구소[31]는 아예 백지화되어버렸다.

---

28) 1973년 10월에 건설 착공, 1974년 3월 준공, 같은 해 5월 현의회에서 「오키나와현립 평화자료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자료관 운영 관리를 재단법인 오키나와현위령봉찬회에 위탁하여 1975년 6월 개관했다. 그러나 '군인유품관'과 같은 전시내용이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 후 2년에 걸쳐 '군중심에서 현민중심으로'라는 전시 개선 작업이 시행되었다.(眞榮里泰山, 「1978年開館にいたるまでの経緯」, 沖縄縣歷史教育者協議會編, 『歷史と眞實―平和記念資料館問題特集 歷史の眞實は否めてはならない』 20, 1999)

29) [옮긴이] 오타 마사히데(1925~2017): 구메지마쵸 출신. 정치가, 사회학자. 1990년~1998년까지 오키나와현지사.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오키나와국제평화연구소 이사장.

30) 오타는 오키나와전 때 사범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철혈근황대(鐵血勤皇隊, [옮긴이] 오키나와현에서 동원된 일본군 역사상 최초의 14세~16세 학도소년병부대. 정규부대에 병합되어 실제 전투에 참가해 많은 전사자를 냈음)에 동원되었다. 그때 많은 친구들을 잃었던 체험이 연구자와 정치가로서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31) 오타는 그 후 개인적으로 평화연구소를 설립했다. 2013년에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오키나와국제평화연구소로 발전시켰다.



그림 2. 오키나와현평화기념자료관 외관(오키나와현평화기념자료관 제공)

그뿐 아니라 1990년대 후반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문제가 표면화된 시기이기도 했다.[32] 기지에 대한 오키나와의 반발의 목소리를 싹 지웠다는 듯 2000년 G7 주요국 수뇌회의 개최지로 오키나와현 나고시가 선정되었다. 당시 후쿠오카나 미야자키가 개최지로 유력하던 가운데 오키나와 나고시가 개최지로 결정되자 미군기지의 용인, 특히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설 허용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도 많았다.

더구나 조작 사건이 있었던 1990년대 후반은 교과서와 역사박물관의

32) 1995년 9월에 일어난 미군 3명에 의한 소녀폭행사건 이후 반기지와 부담경감 요구가 높아지자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오키나와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설치하였다. 1996년 12월 발표한 SACO의 최종 보고에서는 11개 관련시설 반환이 결정되었지만, 그 중 7개가 현내로 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최종보고서의 반환 예정 시설 중에는 오키나와섬 중부의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마 기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시설도 오키나와 섬 북부의 나고시 헤노코 앞바다 해상으로 이설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현과 많은 현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전쟁과 식민지에 관한 역사 표상에 대해 보수의 문제제기, 기술이나 전시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이 전국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이다. 1996년 10월 자민당이 작성한 「전국의 전쟁박물관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은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전시내용'이라는 비판을 받아 그 즈음 각지로 보내 전시하고 있던 자료관의 전시판이 철거되는 사건도 일어났다.[33] 이러한 정치 상황 속에 조작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3.2. 전시의 변경·삭제와 '사건화' 과정

전시의 내용을 정하는 감수위원회는 오키나와전과 미군통치시기 전문가, 주민들로부터 오키나와전 구술 채록을 해 온 지식인 등 13명으로 구성되었다.[34] 신자료관 사무당국은 오키나와현 국제문화국 평화추진과가 맡게 되었다. 1996년 9월에 제1회 감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그 후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렸다. 1999년 3월 17일 제7회 감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전시설계 시나리오」가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3월 23일에 행정담당자가 「전시개요설명서」에 기반해 이나미네 지사와 부지사에게 전시내용을 설명하자 이나미네 지사가 '반일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다. 이를 '전시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해한 행정담당자는 3월부터 7월까지 수개월 동안 업자에게 구두로 전시 변경을 지시했다. 7월 중순에는 전시 항목에 굵은 선을 긋거나 어구를 추가하기도 하면서, 담당자는 삭제·변경을 지시한 41쪽 분량의 「전시검토자료」를 작성했다. 변경을 지시한 이 자료는 행정용어로

33) 石原昌家, 「歴史改ざんの全國的動向」, 石原昌家 외, 앞의 책, 107쪽.

34) 13명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미야기 에츠지로(宮城悅二郎), 이시하라 마사이에(石原昌家), 호시 마사히코(星雅彦), 오시로 마사야스(大城將保), 모토무라 츠루(本村つる), 아라시로 토시아키(新城俊昭), 윌리엄·T·랜들(William T. Randall), 우츠미 에미코(內海惠美子), 오나가 켄지(翁長健治), 오나가 지슈(翁長自修), 슈쿠와 테츠야(宿輪哲也), 아사토 에이코(安里英子), 무라카미 로리(村上呂里).

'수정본 문서'[35]로 불린다. 7월 23일에는 다시 행정담당자가 전시내용에 관해 현지사측에 설명했을 때에도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8월 상순에는 행정담당자가 작성한 「전시검토자료」='수정본 문서'가 업자에게 전달된다. 그 사이 감수위원회가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현지사측의 발언으로 행정담당자가 했던 변경·삭제 지시는 어떻게 조작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까. 경위를 살펴보면 류큐신보와 오키나와타임즈의 조사 보도가 사실 해명에 큰 역할을 했다.

8월 11일 류큐신보가 '새로운 평화기념자료관/ <가마에서 참극> 모형, 일본 군인 삭제한다/ 자결 강요한 병사, 주민에게 향한 총/ 일부 내용을 무단 변경/ 감수위가 의문의 목소리'라고 1면에 보도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점차 관계자의 증언이나 내부 문서 중 일부가 신문 보도로 밝혀진다. 연구자들의 비판뿐 아니라 시민들의 신문 투서, 평화 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항의 활동과 심포지엄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36] 9월 30일부터 시작된 현의 정례회에서는 조작 사건이 논의의 초점이 되었다. 당초에는 현간부나 행정담당자가 발언 내용이나 조작을 지시한 자료의 존재를 부정했지만 신문사의 취재, 심포지엄, 현의 정례회에서의 추궁, 높아진 여론에 힘입어 1999년 10월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다. 내부 자료를 공개하고 전시내용을 감수위원이 맡기로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고 2000년 4월 신자료관이 개관한다. 그러나 4월 16일 영어 캡션에서도 8개 부분의 생략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 중 6개는 '제5전시실 태평양의 요석'으로 불리는 오키나와의 전후에 관한 전시였고 미군에 관한 내용과 주민의 저항 운동에 관한 것이 많아, 신자료관 개관 후에도 조작 사건의

35) [옮긴이] 교정할 때 고친 부분에 선을 긋고 고치는 것처럼 원래 내용이 보이는 수정 문서.

36) 9월 18일 나하시의 야시오소(八汐荘)에서 '오키나와전 1피트 운동 모임', '오키나와 평화 네트워크', '현역사교육자협의회' 주최로 '오키나와전의 진실을 어떻게 전할까. 새로운 현평화기념자료관 긴급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10월 5일에는 나하시 류큐신보 홀에서 '오키나와 평화운동센터' 주최로 '오키나와전 전시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이 개최되었다.

영향이 계속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현간부의 발언과 전시의 변경·삭제

4.1. 주목하는 지점과 자료

조작 사건을 재검토할 때 3월 17일 감수위원이 승인한 전시내용, 변경·삭제의 계기가 된 현간부의 발언(3월 23일, 7월 23일), 변경·삭제가 예정되었던 전시내용, 사건 후 현재의 전시내용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간부의 발언에 관해서는 1999년 10월 7일자 오키나와타임즈의 신문기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가칭) 전시설계 시나리오 상설전시 최종판」에서 조작 전 3월 17일 감수위원회에서 승인한 당초의 전시를 확인한다. 또한 변경·삭제된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사와 7월 중순께 작성되었다는 행정자료 「전시검토자료」, 이른바 '수정본 문서'를 검토한다. 사건 후 현재 전시내용에 관해서는 자료관이 발간하는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종합안내』(2001년 발간) 및 필드 노트로 확인한다.

4.2. 현간부들의 발언

앞서 서술했듯이 행정담당자는 3월 23일과 7월 23일 두 번에 걸쳐 이나미네 케이이치 지사, 마키노 히로타카(牧野浩隆) 부지사, 이시가와 히데오(石川秀雄) 부지사에게 전시내용을 설명했다. 그때 나왔던 지사측의 발언이 전시 변경·삭제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오키나와타임즈 기사에서 그 발언 내용을 확인해보자.[37]

37) 『沖縄タイムス』, 1999.10.7.

지사와 부지사들은 '반일적이어서는 안 된다'(3월 23일, 이나미네),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전시'(3월 23일, 마키노), '편향된 사상으로 전시되면 곤란'(7월 23일, 이나미네)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변경을 지시했다기보다 추상적 발언을 통해 행정담당자가 변경·삭제를 할 대상의 폭을 넓히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반일적'이라는 단어 하나로는 어떠한 전시가 '반일'인지 명확하지 않다. '새로운 연구 성과도 추가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 바란다'(3월 23일, 마키노)라는 발언처럼 현간부들이 보인 대략적인 방향성(반일적이지 않고, 편향된 사상도 아닌, 균형 있는)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행정담당자가 생각한 결과가 '수정본 문서'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또 두 번의 설명회에서 나온 발언 내용으로 행정담당자는 현간부들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당초의 전시안과 거의 바뀌지 않았다. 현정부는 바뀌었는데. 정상회담으로 전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온다'(7월 23일, 이나미네)라는 발언은 현정부의 교체에 동반하는 전시내용의 변화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행정담당자로 하여금 정상회담 참석차 오키나와에 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두 번째 설명회에서 '건물은 어찌 되었든 간에 설명 전시판은 바꿀 수 있는 거네요'(7월 23일, 이시가와)라거나 '새로운 감수위원을 들여야죠'(7월 23일, 마키노)라고 한 두 발언은 전시 변경을 강하게 촉구하는 압박이었다.

4.3. 변경·삭제의 대상이 된 것

4.3.1. '위안부' 문제

선행연구에서는 가마 재현 모형으로 대표되는 주민에 대한 군대의 폭력 전시가 변경·삭제된 것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위안소'를 둘러싼 전시의 변경·삭제 문제를 들 수 있다. 오키나와에는 오키나와전 전에 군대의 배치가 본격화하면서 이와 함께 총

130개소 이상의 '위안소'가 설치되었던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 1999년 당시에도 주민들의 증언 등을 기반으로 '위안소' 설치와 분포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이 밝혀져 있는 상태였다.[38]

'위안소'에 관한 당초의 전시안에 따르면 '위안소'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 군의 '위안소' 이용규정이 기재된 1944년 12월 9일자 이시헤이단(石兵団, 제62사단) 회보가 전시될 예정이었다. 단 '위안소' 전시는 독립된 항목이 아니라 '오키나와 수비군의 전개와 비행장 건설'이라는 항목 속에 위치해, 항목 전체로 본다면 공간도 협소했다. 또 '21세기의 평화창조와 오키나와'라는 코너에는 '아시아 태평양 여러 나라와 일본에 남은 제문제—신문이 논하는 제문제'로 '위안부 문제'가 소개될 예정이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행정담당자는 6월 16일에 전시업자에게 '위안소'에 대한 해설은 나라의 의견을 고려한다[39]고 주문했다. 8월 6일에도 '위안소' 해설은 교과서의 해설과 같은 수준으로 한다는 행정담당자의 지시가 전시업자에게 내려온다.[40] 나아가 '위안소 맵(지도)'은 전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중이었다.[41]

수정본 문서를 보면 전시 항목명이 표로 되어 있는 서류여서 상세한 사항은 게재되어 있지 않고, 비고란에서도 해설의 변경과 '위안소' 맵 삭제에 관한 지시를 확인할 수 없다. '위안부'와 관련해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전후 남은 문제를 소개하는 전시판에서 '위안부 문제'가 삭제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21세기 평화창조와 오키나와'라는 전시 코너의 '아시아 태평양 여러 나라와 일본에 남겨진 제문제—신문이 논하는 제문제'로 '전후보상문제/ 센카쿠제도 영유권 문제/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문제/ 난사제도 영유권 문제/ 북방 영토 문제/ 기타'를 들고 있다. 그 중 '신문이 논하는 제문제/ 전후보상문제/ 기타' 이외에는 굵은 선으로 지워져

38) 第1分科會メンバー編, 『戰爭と女性—'慰安所'マップが語るもの』, 1992.
39) 『沖縄タイムス』·『琉球新報』, 1999.10.9.
40) 같은 기사.
41) 『琉球新報』, 1999.8.28.

삭제 대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안소'에 대한 전시 변경 지시에 현간부들의 발언은 어떻게 영향을 미친 것일까. 이나미네 지사와 행정담당자가 논의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나미네 지사가 '사실이지만, 너무 반일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자 행정담당자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문부성 검정교과서 기술 등을 기본으로 해 전시를 한다'고 대답했다.[42] 그리고 6월 16일에는 행정담당자가 "'위안소' 해설은 나라의 의견을 고려한다"고 전시업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아 지사측의 발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43]

그런데 당시의 교과서 기술은 어떤 것이었을까. '위안부' 문제가 사회문제화한 것은 일본에서 91년 김학순 등 한국의 구'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고발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사실(史實)이 반영되었던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94년도용 고교일본사 등에 이어 97년 4월부터 사용된 중학교 교과서에 '종군위안부'와 '전후보상'이라는 기술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96년께부터 국회의원 그룹, '자유주의사관' 연구회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산케이신문 등 매스컴, 문화인, 우익단체 등에 의해 이러한 역사 기술에 대한 비판, 항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실제 97년도용 교과서를 보더라도 '위안부'문제에 대한 역사 기술이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도쿄서적의 97년도용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또, 국내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다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와 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군위안부로 강제로 전장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다수 있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을 뿐이다.[44] 즉 교과서 수준의 기술이란 최소한의 간략한 설명인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에 관한 삭제 문제는 조작 사건 후의 논의에서 거의 초

---

42) 『沖縄タイムス』, 1999.10.7.
43) 같은 기사.
44) 俵義文, 『'慰安婦'問題と教科書攻撃』, 高文研, 1997.

점화되지 않았다. 『쟁점 오키나와전의 기록』 속 '제3부 이후의 과제와 평화로의 메시지'에 신문기자인 마츠나가 가츠토시(松永勝利)가 쓴 「와야 할 것은 부전(不戰)의 언론」이라는 논고에서 조선반도에서 오키나와로 끌려와 '위안부'가 된 배봉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45] 단 조작·삭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체험자가 살아있을 때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야한다는 문맥 속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자료관에는 일본군의 배치를 설명하는 코너에 '위안소'를 나타내는 지도와 군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에는 '오키나와의 위안소'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해설이 있다.

> 오키나와에서도 각지의 부대에 후방 시설로 위안소가 병설되어 민가 등이 위안소로 사용되었다. '위안부'의 대다수는 조선반도에서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이었다. 그녀들은 부대와 함께 이동했기 때문에 전장에서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

교과서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은 오키나와의 '위안소' 분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중에는 오키나와 출신 여성들도 있었던 사실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에는 적혀 있지 않다. 전시되고 있는 '위안소 분포도'는 '제5회 전국여성사연구회교류 집회 보고서'를 참고로 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조선인 '위안부'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나하시에 있었던 츠지 유곽의 여성들도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담겨 있다. 당시의 역사학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현재의 '위안소' 해설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의 전시에는 다른 몇 군데 지점에도 문제가 있다. 조작 사건 때 삭제 대상이 되었던 '21세기 평화창조와 오키나와'라는 전시 코너의 '아시아 태평양 여러 나라와 일본에 남겨진 제문제—신문이 논하는 제

45) 松永勝利, 「たどりつくべきは不戰の言論」, 石原昌家 외, 앞의 책.

문제'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전부가 삭제되었다. 또 자료관에는 전시판의 메인 해설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작은 해설에는 영역이 없다. '오키나와의 위안소'의 경우도 전시에서는 '오키나와 수비군의 전개와 비행장 건설'이라는 코너 속의 작은 전시판이기 때문에 영역이 없다.

4.3.2. A사인바

조작 사건 관련 자료를 보면 '위안소'처럼 A사인바에 대한 전시도 변경·삭제되어 있다. 그러나 A사인바에 대한 전시는 조작 사건 후에도 가장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전시였다고 할 수 있다. A사인바란 미군의 풍속영업 시설 허가 기준에 합격한 술집이다. 영업을 희망하는 가게는 Approved의 첫 글자인 A마크가 들어간 허가증을 가게 입구에 게시해야 했다. 원래 음식점용 제도로 1953년에 발족했지만 1956년에 술집이나 카바레 등에도 적용되었다. 사업자는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주 1회 성병검사를 받게 할 의무가 있었다. 여성사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로, 전후 미군 통치하에서 미군 병사에 의한 강간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그 대책으로 특수음식점거리(特飮街)가 설치되었지만 피해가 없어지기는커녕 그 주변에서 사건이 계속 일어나 특수음식점거리에서 일하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46]

당초 전시안에는 기지거리를 재현하는 코너에서 A사인바를 재현하고,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 '미군 병사(베트남 귀휴병)', '거리를 순찰하는 헌병(MP)'을 실제 크기의 모형으로 설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월 6일 현의 담당자가 전시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했을 때 A사인바의 흑인이 인종 차별과 연관되지 않는지[47] 당초의 전시안에 의문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6월 16일 현 담당자가 전시업자에게 검토 결과

46) 宮城晴美, 「沖縄のアメリカ軍基地と性暴力——アメリカ軍上陸から講和條約發効前の性犯罪の實態を通して」, 中野敏男·波平恒男·屋嘉比收·李孝德編, 『沖縄の占領と日本の復興　植民地主義はいかに継續したか』, 青弓社, 2006.

47) 『琉球新報』, 1999.10.6.

를 설명할 때에는 A사인바의 동선을 주요 동선에서 빼라[48]고 변경을 지시했다. 그 후 7월 9일 현 담당자는 A사인바 전시 면적 축소[49]를 자료관 도면 및 완성예상도 작성업자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그림 3. A사인바 모형의 외부 모습(오키나와현평화기념자료관 제공)

수정본 문서에서도 실제 크기 모형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확인된다. A사인바를 재현하는 실제 크기 모형인 '가게에서 일하는 여성', '미군 병사(베트남 귀휴병)', '거리를 순찰하는 헌병'이 굵은 선으로 지워져 있다. 남은 것은 'A사인증을 붙인 가게', '주크박스', '간판, 네온사인', '그 외' 등으로, 사람을 없애고 건물만 남겨 놓았다.

그러나 지사측 발언을 다시 보아도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한 발언은 확인할 수 없다.[50] 현 담당자가 행정담당자에게 "A사인바의 흑인이 인종차

48) 『沖縄タイムス』·『琉球新報』, 1999.10.9.
49) 같은 기사.
50) 『沖縄タイムス』, 1999.10.7.

별과 연관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A사인바에 실물 크기의 모형을 놓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메시지를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모형 삭제나 전시를 주요 동선에서 빼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보건대, 행정담당자에게는 A사인바 자체가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가진 전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사건 이후 신문지상은 물론 선행연구에서도 A사인바를 둘러싼 변경은 초점화되어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작 사건 발각 후 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원래의 전시안대로 다시 수정되지 않은 채 실물 크기 모형 없이 전시되고 있다. 제5전시실에 기지거리가 재현된 코너의 가장 마지막에 A사인바가 있다. 기지거리에 들어서면 처음에 시장을 재현해 놓았는데, 오른쪽에 야채가 널려 있고 왼쪽에는 머리카락을 둥글게 묶어 올리고 하얀 셔츠에 앞치마를 한 실제 크기 모형이 고기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땀을 닦고 있다. 시장을 지나면 작은 광장이 나오고 우측에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 모퉁이에는 구두닦이 아이의 모형이 있다. 거리는 왼쪽으로 꺾여 길 왼쪽에는 기념품 가게, 가게 앞에는 상품 바구니를 안은 아이의 모형이 서 있고 기념품 가게 맞은편에는 상점이 있다. 더 가면 길은 오른쪽으로 꺾이는데 이 길이 코너의 가장 마지막이 되고 왼쪽에 'NEW YORK'이라는 간판이 걸린 A사인바가 있다. 입구의 큰 창으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술이 진열된 바 카운터 안쪽 벽에는 파란 'A사인' 영업허가증이 걸려 있다. 가게의 외벽과 울타리에는 '호스티스 높은 급료로 우대합니다. 클럽 뉴욕'이라고 쓰인 포스터가 붙어 있다.

기지거리의 경우 모형이 전시의 중심이 되고 문자 정보는 적다. A사인바 가게의 외벽에는 A사인바와 특수음식점거리 모습에 관한 짧은 증언이 작은 전시판으로 전시되어 있다. 'A사인바'라는 전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 당시 고자시 일대는 가로쓰기 간판이 붙어 있는 가게가 즐비했다. 특수음식점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A사인 표시가 있는 카바레나 바였다. 해

가 지는 저녁 무렵이 되면 카바레나 바의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점멸하면서 고자 거리를 채색하며 주위를 둘러쌌다. 그리고 감미롭고 경쾌한 곡이 카바레나 바의 쥬크박스에서 흘러나왔다.



그림 4. A사인바 모형의 내부 모습(오키나와현평화기념자료관 제공)

전시판의 제목은 일견 A사인바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같지만 내용은 개인의 증언이다. 특수음식점거리의 '화려함'만 묘사해 여성사 연구자들이 밝혀온 A사인바나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다루고 있지 않다. 다른 증언의 제목을 열거해보면 '외로운 군인'(W.T.ランドル, 당시 47세), '빈번하게 일어난 인종차별에 얽힌 사건'(瀬田米三), '베트남 출격병을 전송하며'(徳富清次)라고 되어 있고, 내용은 가족 이산이나 베트남 출격 전 미군의 슬픔과 스트레스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안소'나 A사인바 전시에 대해서도 변경·삭제 지시가 있었고,

사건 발각 후에 원래대로 복구된 전시도 있지만 변경·삭제된 채로 진행된 전시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전시는 애초부터 다른 전시보다 우선순위가 낮았고 공간의 크기와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5. 조작 사건 재고로 드러나는 것

5.1. 변경·삭제의 방법과 그 효과

'위안소'나 A사인바 전시의 변경·삭제는 다른 전시와 비교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변경·삭제의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변경·삭제의 방법을 초점화하면 다음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문자 정보에 관한 사항인데 '설명 수준을 낮춘다'는 방법이다. '위안소'에 관한 설명도 애당초 큰 토픽으로 다루어지지 않지만, 내용을 교과서 수준으로 한다는 변경 지시는 오키나와의 '위안소' 연구 수준에서 본다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조작의 영향으로 피해의 말소나 왜소화를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중요한 것은 조작 사건을 수습한 후인 현재 전시판의 설명에서조차 해설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위안소' 해설도 그러하지만 A사인바에 관한 해설 전시판도 애초부터 없다. 그 대신에 A사인바를 둘러싼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주로 시각 정보에 관한 것인데 '얼굴을 지운다'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얼굴을 지운다'[51]란 모형 삭제라는 의미도 포함

51)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은 '당신은 죽여서는 안됩니다'라는 무한한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한다.(レヴィナス, 『全体性と無限 下』, 岩波文庫, 2006) 다른 한편으로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된다.(牧野雅子, 『刑事司法とジェンダー』, インパク

하지만 개인의 고유성이나 구체성을 지운다는 의미이다. ‘얼굴을 지운다’의 영향은 공감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자료관 전시에서는 주민의 증언집을 읽을 수 있는 코너와 증언 영상 부스, 인물을 찍은 사진도 많이 전시되어 있어 ‘얼굴을 드러내는’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비참한 체험을 전하기 위해 공감을 생성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A사인바 전시에서 실물 크기 모형의 삭제 지시는 그러한 장치를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현재 실물 크기 모형이 없는 A사인바 재현을 보며 그곳에 살았던 여성들과 병사의 고락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건물뿐인 A사인바는 탈성화(脫性化), 탈군사화된 공간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칠 것이다.



그림 5. 가마 안, 모자의 표정(오키나와현평화기념자료관 제공)

‘얼굴을 지운다’는 행위의 효과를 더 이해하기 위해 ‘얼굴을 드러내는’

ト出版會, 2013) 이것은 얼굴을 무의식중에 제대로 보지 않는 혹은 잊는 것인데, 살인에도 필적할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얼굴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시인 가마의 모형에 눈을 돌려보자. 애초 조작 사건 발각 계기가 되었던 가마 모형 변경은 거센 비판에 부딪혀 당초의 전시안으로 되돌아갔다. 실제 가마 재현은 긴장감과 공포감이 전달되는 박력 있는 전시가 되었다. 얼굴 중에서도 특히 눈이 인상적이다. 총을 손에 들고 호 안을 노려보는 병사의 눈, 우는 아이의 입을 눌러 막으며 땅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 공허한 노인들의 눈, 이들의 눈은 보는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힘이 크다.

이상으로 설명 수준을 낮추기, 얼굴 지우기 등이 변경·삭제 때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피해의 왜소화와 말소, 공감 생성의 저지였다. 다시 말해 '위안소'와 A사인바에 가해진 변경·삭제는 다른 전시에 가해진 것과 동등하게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2. 공범화와 탈공범화

다시 삭제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들을 정리해 보자.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주제로 일본군과 미군에 의한 주민 폭력이 있는데 이를 '군대의 폭력'으로 부르자. 제4절에서 확인했듯이 '위안소'와 A사인바도 똑같이 변경이나 삭제의 대상이 되었다. 섹슈얼리티 관련 중요한 역사인 이 두 개의 전시를 '섹슈얼리티'라고 부르자. 앞에서 섹슈얼리티에 가해졌던 변경·삭제의 방법과 그 효과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군대의 폭력 전시에 가해졌던 것과 똑같은 '조작'이 두 전시에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간부들의 발언을 전시 변경 지시로 받아들인 행정담당자들에 의해 일어난 조작 사건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변경·삭제를 포함해 공범화라는 개념에서 독해할 수 있다. 현간부, 행정담당자, 업자에게 조작이 교사·지시되는데 이들 각각은 전시 조작의 공범화에 연루되어 있다. 현지사측의 발언에서는 일본군의 잔학성을 옅게 만들려는 조작에 대한 적극적 자세를 읽을 수 있다. 한편 행정담당자들은 위로부터 압력을 받아 변경·삭제 전시안을 만들었고 역사를 재현하는 방법을 바꾸고 싶다는 명확한 의사가 희박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포함한 채 전시 조작은 진행되

었다.

‘군대의 폭력’과 ‘섹슈얼리티’는 모두 군대의 리얼리티를 보여주는 한편 군대의 정당성을 흔들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개의 주제는 군대의 정당성을 동요하게 하는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군대의 폭력에 관한 전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군대는 주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오키나와전의 교훈을 보여주고, “군대는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표면적인 모습을 붕괴시킨다. 또한 섹슈얼리티에 관한 전시는 군대의 청렴함을 위협한다. ‘위안소’나 A사인바 전시는 이 문제를 성폭력과 성적 착취로 파악하는 사람뿐 아니라 보통의 상행위로 인식하는 사람에게도 성적인 것의 기피라는 점에서 군대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조작 사건 발각 후 행정을 비판하고 전시 조작 수정을 촉구한 오키나와 지식인들의 모임은 탈공범화의 시도로 볼 수도 있지만, 섹슈얼리티라는 관점을 도입하면 그 시도가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변경 대상이 되었던 각각의 주제를 오키나와 지식인들이 다루는 방법 차이를 확인해보자. 변경·삭제 대상이 된 군대의 폭력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학술잡지의 특집[52], 관련 서적 등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고, 삭제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가 확실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변경·삭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군대의 폭력에 대한 변경·삭제 비판은 명시되었고, 섹슈얼리티 변경·삭제에 대한 비판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논의와 현재 섹슈얼리티에 관한 전시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종합해보면 탈공범화는 미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군대의 주민 폭력이 은폐되는 데 대해 위기감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오키나와 지식인들이 왜 섹슈얼리티 조작은 문제화할 수 없었던 것일까. 첫째, 오키나와 지식인들이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이 대립

52) 『역사와 실천(歴史と實踐)』 제20호(1999년), 『케시카지(けーし風)』 제25호(1999년), 『임팩션(インパクション)』 제119호(2000년) 등 많은 잡지가 조작 사건을 특집으로 꾸렸다.

하고 있음을 주장할 때 '위안소'나 A사인바와 군사주의의 관련성, 바꿔 말하자면 '군대'가 요구하는 성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피해로서의 성폭력을 과소평가해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애당초 '위안부'나 A사인바에 있었던 여성들이 전쟁과 군대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오키나와전 연구자를 비롯한 오키나와 지식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강간 신화로 인해 피해자로 보이기 힘들어지는 일반적인 의식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오키나와의 지식인이 섹슈얼리티 조작을 문제화 할 수 없었다는 분석 결과는 성(폭력)의 문제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준다. 특히 1995년 이후 오키나와 페미니스트들은 군사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두 방향을 비판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53] 이러한 활동가와 여성사 연구자들에 의해 성폭력 피해의 역사가 발굴되고 기록될 수 있었다.[54] 그러나 군대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역사학적인 공헌 및 인식론적 공헌이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 대립이라는 틀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이 여기서 드러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민'이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누가 그곳에서 배제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의 시점을 너무 절대시해왔다는 것이다.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은 대립하고 있지만 똑같이 가부장제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성의 이중기준에 의한 여성의 분리(처=모/창부)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 보통 주민은 매춘하는 여성을 배제하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수치라는 시선으로 억압해온 측면이 있다. 오키나와

53) 秋林こずえ, 위의 글.

54) 김학순들의 호소는 오키나와 여성사 연구자와 활동가들도 군대의 '성폭력'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 '제5회 전국여성사연구교류모임'이 오키나와에서 개최되었을 때, 오키나와 현지의 여성사 연구자들이 '위안소'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1995년 미군의 소녀 폭행 사건 후 결성된 '기지·군대를 허용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자들의 모임'은 신문기사 등을 기반으로 미군의 성범죄를 연표로 정리했고 이후에도 판을 거듭해 계속 기록하고 있다.

전 당시에도 주민이라는 단어에는 조선인, ‘위안부’, 장애자는 새까맣게 배제되었던 것은 아닐까. ‘위안소’와 A사인바 여자들은 성 규범에서 벗어난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에서 배제된다. 오키나와전 기록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주민의 시점에 서야 한다고 오키나와의 지식인들이 말할 때 그들/그녀들이 가진 ‘우리’ 의식이 함의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지점에서 1999년 조작 사건 당시 많은 오키나와의 지식인들에게는 ‘위안부’와 A사인바 여성들은 ‘피해자’도 ‘우리’도 아닌 존재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55] 오키나와현 간부나 행정담당자를 비판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취한 주민의 시점에 전제되어 있는 ‘피해자’와 ‘우리’라는 카테고리에, 오키나와전의 사실(史實)에 대한 취사선택 과정에 가부장제적 성 규범이 들어 있다. 악의 없이 무의식중에 ‘위안부’나 A사인바 여성들을 오키나와전과 오키나와 전후 역사 속에서 불가시화하는 일에 가담해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키나와 지식인들의 군사주의 비판이라는 목적에서 본다면 본의는 아니었을 것이다.

6. 나오며

이상과 같이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의 전시 조작 사건을 다시 검토해 보면 주민에 대한 군대의 폭력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에 관련한 중요한 역사도 조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섹슈얼리티

55) 주민의 증언 기록을 기초로 정리한 지자체 역사(自治体史誌) 속의 ‘위안소’와 ‘위안부’ 표상 변화를 논한 졸고에서는 조선인‘위안부’, 오키나와인‘위안부’, 야마토인 ‘위안부’가 내셔널리티, 에스니시티, 섹슈얼리티 경계선의 틈새에 위치해 공감공고(compassion)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왔음을 논하고 있으며 본고의 분석과 일치한다.(玉城福子, 「沖縄戦の犠牲者をめぐる共感共苦(コンパッション)の境界線—自治体史誌における‘慰安婦’と‘慰安所’の記述に着目して」, 『フォーラム現代社會學』 10, 2011)

와 관련성이 짙은 역사가 전시 조작 사건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부각되지 않았다. '위안소'와 A사인바 전시에 주목한 조작 사건의 재검토로 오키나와전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이라는 이항대립의 전제를 다시 물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이 보여주듯 식민지주의와 군사주의 그리고 성차별이 어떻게 함께 서로 지지하며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바꿔 말하면 탈군사주의·탈식민지주의를 고찰하기 위해서도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분석이 불가결하다. 그렇지 않으면 군대에 있어 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고 탈공범화의 시도도 실패해버린다. 그것은 성매매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위안부'와 A사인바 여성들의 존재는 선행연구가 은연중에 상정했던 '피해자'와 '우리'라는 카테고리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배제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주민=오키나와인의 경계선을 고정화하려는 내셔널리즘의 위험성을 자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오키나와전의 경험이 평화사상을 낳았다고 회자되는데 성을 포함해 오키나와전 역사 표상의 존재 방식을 재고할 때, '평화'의 이미지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성폭력의 피해를 왜소화하고, 피해자 케어와 가해자 갱생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없는 사회 상태를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성매매를 선악의 문제로 환원하고 성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방치하는 것을 평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오키나와전 역사와의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된 상태인지도 모른다. 섹슈얼리티가 조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에서 비롯된 문제제기가 식민지주의와 군사주의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힘을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第1分科會メンバー編,『戰爭と女性—'慰安所'マップが語るもの』, 1992.
シンシア·エンロー,『戰爭の翌朝—ポスト冷戰時代をジェンダーで讀む』, 池田悅子譯, 綠風出版, 1999.
シンシア·エンロー, 『策略—女性を軍事化する國際政治』, 上野千鶴子監譯·佐藤文香譯, 岩波書店, 2006.
勝方＝稻福惠子,『おきなわ女性學事始』, 新宿書房, 2006.
菊地夏野,『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とジェンダー』, 靑弓社, 2010.
C·ダグラス·ラミス,『憲法と戰爭』, 晶文社, 2000.
レヴィナス,『全体性と無限 下』, 岩波文庫, 2006.
牧野雅子,『刑事司法とジェンダー』, インパクト出版會, 2013.
石原昌家·大城將保·保坂廣志·松永勝利,『爭点 · 沖繩戰の記憶』, 社會評論社, 2002.
テッサ·モーリス=スズキ, 『批判的想像力のために—グローバル化時代の日本』, 平凡社, 2002.
野村浩也, 『無意識の植民地主義—日本人の米軍基地と沖繩人』, 御茶の水書房, 2005.
沖繩縣歷史敎育者協議會編,『歷史と眞實—平和記念資料館問題特集 歷史の眞實は否めてはならない』20, 1999.
ベティ·リアドン,『性差別主義と戰爭システム』, 山下史譯, 勁草書房, 1988.
新城郁夫, 『沖繩文學という企て—葛藤する言語 · 身体 · 記憶』, インパクト出版會, 2003.
新城郁夫,『到來する沖繩—沖繩表象批判論』, インパクト出版會, 2007.
新城郁夫,『沖繩を聞く』, みすず書房, 2010.
新城俊昭·翁長建治·篠原武夫·宮城悅二郎,『沖繩縣平和記念資料館 總合案內』, 2010.

俵義文,『'慰安婦'問題と教科書攻撃』, 高文研, 1997.
若桑みどり, 『戰爭とジェンダー—戰爭を起こす男性同盟と平和を創るジェンダー理論』, 大月書店, 2005.
上野千鶴子,『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ー 新版』, 岩波現代文庫, 2012.

2. 논문

秋林こずえ, 「沖縄'基地 · 軍隊を許さない行動する女たちの會'-批判的フェミニズムと平和」, 女性 · 戰爭 · 人權學會學會誌編集委員會編,『女性 · 戰爭 · 人權』7, 2005, 39-52쪽.
荒川章二,「新沖縄縣平和祈念資料館設立をめぐって」,『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26, 2006, 133-190쪽.
長谷川曾乃江, 「沖縄縣新平和記念資料館問題の思想史的再考」,『法學新報』107, 2000, 483-504쪽.
權仁淑,「韓國の軍事主義とジェンダー」, 山下英愛譯, 女性 · 戰爭 · 人權學會學會誌編集委員會編,『女性 · 戰爭 · 人權』6, 行路社, 2003, 64-91쪽.
C·ダグラス·ラミス,「帝國を設けて、何がてけないのか?」, 野村浩也編,『植民者へ—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という挑發』, 松籟社, 2007, 233-253쪽.
宮城晴美, 「沖縄のアメリカ軍基地と性暴力——アメリカ軍上陸から講和條約發効前の性犯罪の實態を通して」, 中野敏男·波平恒男·屋嘉比收·李孝德編, 『沖縄の占領と日本の復興 植民地主義はいかに継續したか』, 青弓社, 2006, 42-58쪽.
櫻澤誠,「沖縄戰の戰後史—'軍隊の論理'と'住民の論理'のはざま」,『立命館平和研究』11, 2010, 19-28쪽.
島袋まりあ, 「太平洋を横斷する植民地主義—日米兩國の革新派と'縣外移設論'をめぐって」, 野村浩也編,『植民者へ：ポストコロニアリズムという挑發』, 松籟社, 2007, 317-356쪽.

平良修, 「沖縄の戰爭罪責—摩文仁が丘慰靈碑·平和の礎·新平和祈念資料館をめぐって」,『インパクション』119, 2000.

玉城福子,「沖縄戰の犧牲者をめぐる共感共苦(コンパッション)の境界線—自治体史誌における'慰安婦'と'慰安所'の記述に着目して」,『フォーラム現代社會學』10, 2011, 122-134쪽.

鳥山淳,「沖縄戰をめぐる聞き書きの登場」, 倉澤愛子ら編,『日常生活の中の總力戰』, 岩波書店, 2006, 381-406쪽.

吉浜忍,「沖縄戰後史にみる沖縄戰關係刊行物の傾向」,『史料編集室紀要』25, 2000, 55-82쪽.

Yonetani, Julia 2002 "Contested memories: struggles over war and peace in contemporary Okinawa". In Glen D., Hook and Siddle (eds) *Japan and Okinawa: Structure and Subjectivity,* pp.188-207. London:Routledge.

<옮긴이 후기>

오키나와현 평화기념공원에는 오키나와전에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평화의 초석에 새겨져 있다. 그 중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다. 하나의 조선에서 오키나와로 가게 된 사람들의 이름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평화의 초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들을 젠더의 시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조선인 여성 희생자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심없이, 악의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젠더의 시점으로 다시 조명했을 때 어둠 속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유령처럼 부각되어 드러날 때가 있다.

타마시로 후쿠코는 1999년에 있었던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전시 조작 사건을 젠더의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보고 당시 대부분의 전시 조작 사건 비판이 조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논문에서 드러낸다. 그럼으로써 일본군대의 시점/주민의 시점이라는 이분법적 틀로는 조명해내지 못했던 일본군 위안소 전시와 A사인바 전시에 조작이 있었고, 그 대부분이 원래의 전시안대로 복원되지 않은 채 전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분법적 틀 속에서 자신을 '주민의 시점' 쪽에 위치시킨 채 안전하게 '일본군대의 시점'을 비판해온 오키나와 지식인들에게 젠더의 시점으로 자기반성의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젠더의 시각으로 한국의 근현대사 역사관과 박물관의 재현을 다시 살펴보면 아직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많은 존재들이 '전시 없음'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판결은 국가가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했고, 성병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거나 미군에게 지목된 위안부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강제로 격

리 수용해 치료한 정부의 조치가 위법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과 함께 어떤 박물관과 역사관에서 이들의 역사를 재현하고 조명하고 있는지 아직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